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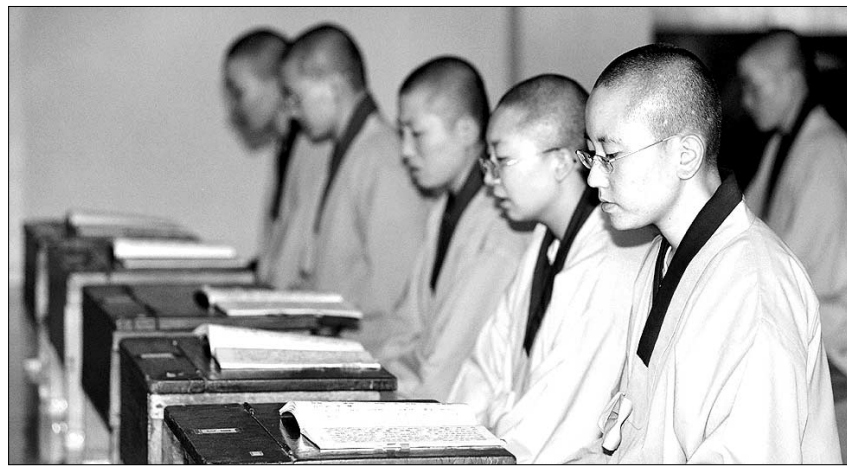
공부면 공부 포교면 포교 '척척'

사미니 강원을 가다 ①수원 봉녕사 (www.bongnyeongsa.org)

비구니 승단 성장의 중심에는 도제 양성에 헌신한 수많은 어른스님들의 원력을 무시할 수 없다. 수행자의 위의를 닦는 승려교육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교학발전의 터전이 되어온 사미니 강원 교직원들과 학인들의 끝없는 정진현장에서 한국 비구니의 미래를 가능케 한다.



봉녕사 강원 교직원과 중강 스님들. 사진 왼쪽부터 강사 도혜·적연 스님, 중강 동명·설오 스님.



봉녕사 학인들은 내전 중심의 기본 교과과정과 함께 영법, 외국어, 컴퓨터, 피아노 등 다양한 분야를 배우고 있다.

내외전 치우침이 가르쳐

수원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사찰인 봉녕사에는 단정히 좌정한 학인들의 낭랑한 독경소리가 하루종일 끊이지 않는다.

현재 강주 묘엄 스님의 지도 아래 강사 도혜, 적연 스님, 중강 동명, 설오 스님이 120여 명의 학인들을 가르치고 있다.

봉녕사는 매년 종강때마다 다른 강원에서 실시하지 않는 통과예례를 실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치문반과 사집반은 12월 종강 후 3000배 철야정진을 하고 이튿날 곧바로 수원 화성 성곽 4대문을 순례한다.

수원시내에는 아직도 50여명의 봉녕사 학인이 새벽 눈길을 헤치고 화성을 걸어 오르는 모습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다. 강사 적연 스님은 "이것은 강원 개원 초기부터 내려오는 전통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 신심과 자신감으로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매년 봄 실시하는 다담회도 봉녕사 강원만의 자랑이다. 학인들은 '수제비대회'라고 부르는 이 행사는 진달래꽃이 만발하는 봄이면 광고산 일대의 산나물과 꽃을 따서 음식 경연대회를 벌이는 행사다. 학인들은 갖가지

화전과 수제비 등을 만들어 강주스님 앞에서 솜씨를 자랑한다. 여름에는 이와 비슷한 수박대회가 열린다.

봉녕사 강원 교과과정은 내·외전에 치우치지 않고 매 학년 다양한 분야의 특강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교과과정 가운데 내전은 다른 강원과 마찬가지로 교육원에서 정한 정규과목을 중심으로 가르친다. 매주

군포교·청소년 교회에 앞장

목요일 오후는 운동시간으로 반별 체육대회가 열리고 금요일은 외부강사를 초청해 특강을 실시한다. 전 학년이 공통으로 수강하는 외전은 영법, 중국어, 영어, 일어, 꽃꽂이 등이 다. 이밖에 사집반은 선거귀감, 대총상, 인도 불교사, 피아노를 추가해서 배우고 있다.

학인들은 군 포교와 봉사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안양 소년원의 청소년 교화 활동은 20년 넘게 지속해 오고 있다. 매년 정심여중·고에 재학 중인 소년원 청소년 30여 명을 봉녕사로 초청해 수제식을 차려 주고 있다. 또 수지 인근의 군법당 '호국 흥국사'에서 매주 군 장병들을 위한 법회에도 힘을 쏟고 있다.

"중노릇 잘 하려면 바르게 배워야지"

인터뷰 강주 묘엄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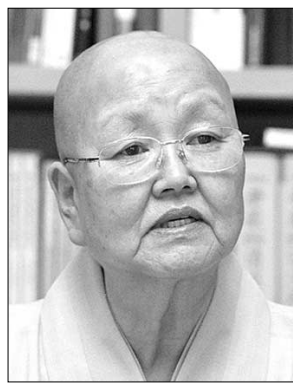
"일심으로 정진해 올바른 중노릇 하라 가르치는 게 내 일이에요. 그렇게 33년을 살았어요."

묘엄 스님은 1931년 진주에서 태어나 14세에 출가, 문경 대승사에서 비구니 월해 스님을 은사로 득도. 1945년 성철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받았다. 스님은 성철 스님이 계를 준 유일한 비구니이다.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일생을 출가수행자의 사표로 살아오신 스님에 대한 봉녕사 사부대중의 존경이 남다르다.

스님이 지금의 봉녕사로 오게 된 것은 1971년. 운문사를 떠나 그해 4월 선방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문중스님 30여명을 이끌고 봉녕사에 도착했다.

1974년 봄에 학인 30명을 뽑는다고는 신문광고로 냈더니 학인 50명이 모였다. 강사 묘엄 스님에게 배우겠다고 전국 각지에서 비구니들이 모여든 것이다. "이듬해 1975년에 20명을 더 뽑아 70



이렇게 회상했다. 한때 제자들은 스님을 '밀리미터'라고 불렀다. 평소 자상하기 그지없는 스님이지만 사중의 일이나 학인들을 가르치는 데는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성격 탓이다.

스님은 "불법의 근본은 명심견성(明心見性)이며 글을 배우는 것은 이것을 완성하는 기초공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신다. "정확하고 바르게 배워야 작은 것이라도 남에게 전해줄 수 있다"고 늘 강조하는 스님은 오늘도 광교산(光敎山) 수행자들의 큰 스승으로 존경 받고 있다.

금강율원

율주에 가산지관(伽山智冠) 스님, 율원장에 묘엄 스님을 모시고 1999년 6월 21일 세계 최초의 비구니 율원 '금강 율원'이 개원했다. 금강율원은 2년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율장의 전문적 연구와 율학(律學)을 전승할 율사(律師) 양성 등을 목표로 한다. 교과목은 1년차때 계율 개론, 사미니 율의 및 주석서, 남북전율장 비교 연구, 선원정규 등이며 2년차 때는 사분비구니 율장, 범망경, 비구니 교단사(인도, 중국, 한국 비구니전) 등이다. 현재 5기 율원생 9명이 수확하고 있다.

동문회 '선우회'

1976년 결성된 선우회는 주로 동문간의 친목과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현 회장은 부산 대원사 주지 정운 스님

(6회)이다. 그동안 봉녕사 강원원이 배출한 졸업생은 600여명. 주요공문으로는 석담(미국 버지니아대 연구), 비구니 최초로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을 지낸 탁연, 범종(원주 위봉사, 선정(거제 관음사), 일운(울진 구룡사), 상일(전 봉녕사 강사), 영제(서울 향림사, 경륜 스님(서울 석불사) 등이 종단의 중진 스님으로 수행과 포교에 힘쓰고 있다.

이밖에 본각(중앙승가대), 범녕(동국대 강사), 원찬(진주 유정사, 현종(행자교육원), 대림(청정도론 번역), 지은, 성건(의정부 회룡사, 홍수(기본선원), 적연(봉녕사 강사) 스님 등이 이목 출신이다.

또 사찰음식으로 유명한 선재, 사회복지에 지관, 동국대 강사 윤율, 불교미술에 귀일 스님 등이 각각 전문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글=조용수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한국의 비구니 스님 <15> 법운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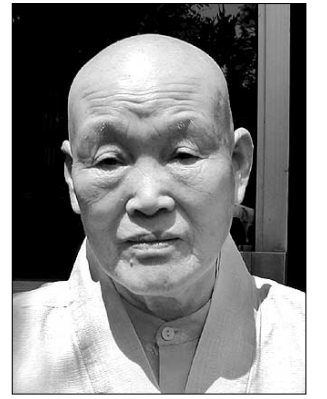
40년전 미래불교 씨앗 뿌려

"사람 관계는 항아리 같아서 한번 금이 가면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금이 가기 전에 하심하고 인욕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세계가 중생이 행복하게 사는 불국토가 됩니다."

서울 마포 석불사 회주 법운 스님은 평소에도 화합과 인욕, 하심이 불자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야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마음의 평온과 여유가 생겨 진정한 행복을 깨닫게 된다는 것.

그러나 스님은 평소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말 보다는 실천이 더 큰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스님의 이같은 신념 때문일까?

법수, 법선, 법인 스님 등 세수 80이 넘는 노장 스님을 비롯해 20여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



주역할을 했다.

지금부터 40여년 전 법운 스님은 아주 특별한 일을 시작했다. 당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어린이 법회를 사찰에 개설하고 법회를 손수 집전하며 미래 불교에 대한 씨앗을 뿌렸다.

지금은 최윤희 불교방송 PD 등 석불사 어린이회 출신들이 청장년으로 성장해 청년 법회를 이끌

어린이법회 열어 포교 앞장

전국 비구니 조직 내실 다져

정진하는 석불사에는 말없는 웃음소리가 넘쳐난다.

석불사 스님들은 평소 하심하고 인욕하며 항상 웃으시는 법운 스님을 뵈 때마다 존경심이 생기고 나도 저런 스님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화내거나 상내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1977년 강화생인 법운 스님은 고모 두 분이 출가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자연스럽게 불교를 알게 된 스님은 9세 때 석불사 고천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5세에 은사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8세에 하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이후 수덕사 견성암 등 전국 제방에서 수행을 했으며 6·25이후 폐허가 된 석불사 재건을 위해 은사인 천일 스님을 도와 불사에 매진했다.

1980년부터 99년까지 석불사 주지를 맡아 석불사를 비구니 청정도량으로 자리매김시키는데

고 있으며 다시 또 그 자녀들이 어린이 법회에 참석하는 등 2대에 걸쳐 수행활동을 할 정도로 그 열매를 맺었다.

법운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강화에도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니 모임인 '우담바라'를 창립하며 비구니 스님을 위한 활동을 했던 은사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지난 해까지 20년간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을 맡아 조직의 내실을 다졌다. 해운, 광우, 진관 스님과 더불어 전국을 만행하며 화주해 전국비구니회관 건립에 앞장섰다.

목동청소년회관 관장 경륜(석불사 주지) 스님은 "은사 스님이 우담바라회의 회장을 역임할 때 법운 스님이 함께 일을 도왔고 주지로 소임을 삼 때 많은 신도들이 주지 스님이 누군지 모를 정도로 전국비구니회 일에 헌신했다"며 법운 스님의 활동을 소개했다.

김두식 기자 doob@buddhapia.com

사대천왕 복원 및 사천왕문 중수를 위한 모연문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관으로 볼 때 수미산은 우주의 중심이며, 부처님은 수미산 위 도솔천에 계시고, 사대천왕은 수미산 중턱에 머무시면서 불법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송광사 사천왕문과 사대천왕상은 서기 1462년(세조) 이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동안 몇 번의 중수가 있었고, 세월의 풍랑 속에 많이 훼손되었던 것을, 이번에 송광사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새롭게 사대천왕상을 복원하고 사천왕문을 중수하게 되었습니다. 불사(佛事)는 한 두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힘들고 뜻있는 불법(佛法)의 인연(因緣)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어, 부처님의 크신 자비에 인연을 맺고, 이 불사가 원만히 회향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뜻에서 이러한 모연의 글을 띄우게 되었습니다.

- 동참방법 : 송광사 방문 시에는 대응보전 또는 중무소에서 신청하시고, 전화 동참도 가능합니다.
- 1인 동참금 : 300,000원
- 동참 계좌번호 : 우체국 501676-01-001352 (예금주 / 송광사)
- 연 락 처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 061-755-0107 ~ 9)

대한불교 조계종 승보종찰 송광사 주지 영조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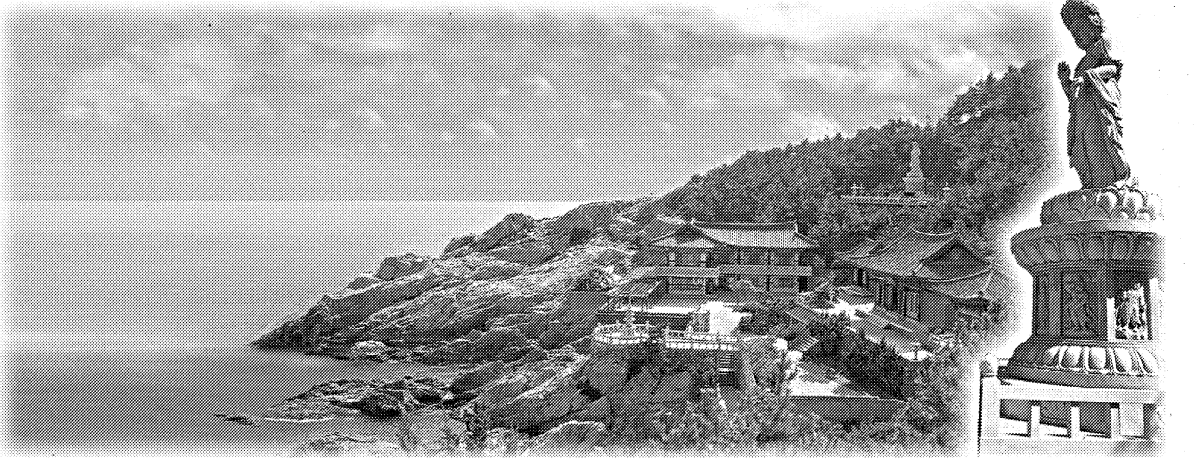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 대형 주차장 완비
- ◀ 입장료 무료
- ◀ 점심공양 가능
- ◀ 방생을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 7755